

나의서원 나의 신행 <3>

삼독심 빼고 보리심 심고 불과佛果 캐자

청소년 포교의 주역 선진규 봉화산 정도원장



선진규 이사장은 ... 1934년 김해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불교대학·대학원 수학. 국립청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환경공학을 전공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총학생회장, 조계종 상임포교사,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을 역임했다. 88올림픽 10만 유등 기획 홍보실장, 봉화산 청소년 수련원 원장,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회장, 경남도 도의원,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캠프 전국불교대책위원장, 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등을 맡았다. 민주통합당정경정책위원, 한국불교신문협회 회장,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청소년지도자 표창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월장님 계신 가 바빠라.”
“계시면 모시고 올까요?”
“아니다... 참 좋은 분인데...”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前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날, 부암이바위에 있던 노 前 대통령과 동행했던 경호원의 대화이다. 노 前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찾았던 원장이 봉화산 정도원장 선진규 법사이다.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활동차 상경한 선 법사를 2월 조계사 인근에서 만났다.

선진규 법사는 한국 현대불교의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기틀을 잡은 장본인이다.
1959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농촌계몽을 위해 봉화산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 동문수학했던 도반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돈과 원력을 모아 호미든관음상을 세웠다.
낯선 호미를 든 관음상의 출현은 당시 동아일보·한국일보에 보도됐고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선진규 법사는 1934년 4월 김해 한림면 장판마을 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가 있는 봉화산 남쪽 기슭 반대편, 봉화산 북쪽 기슭이 선 법사의 고향집이다.
어린 선진규는 스님이 되고 싶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목격하면서 삶과 죽음의 무상함을 절실히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온 북한군에 맞서 학도병으로 입대해 나라와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가족들의 만류로 여의지 않았다. 그러나 미24사단이 선진규 가족 소유의 과수원에 주둔하면서 그는 군속이 되었다.

당시 선진규의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으로부터 손자만큼은 살려보겠다고 손자를 미군부대에 팔려 보냈다. 보금부대와 함께 있으면 후방에 있을 것이고 흑사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함께 움직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부대는 최전방 보금부대였다.
전세가 역전되면서 복진에 복진을 거듭했고, 선진규는 취사반에서 일하며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넘기에 이르렀다. 가는 동안 내내 눈에 목격된 것은 불바다와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시체뿐이었다.
“어린 나이에 전쟁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불교를 택한 이유입니다.”

학도병 선진규는 1951년 2월 이승만 대통령이 소년병들은 모두 복귀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전방에 있던 터라 7월에서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린 선진규는 민족끼리 왜 싸우나 싶었다. 이념이 무엇인가 싶었다. 자기 주장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 웅변을 익혔다. 웅변대회에 나갔지만 처음에는 예선 통과도 힘들었다. 그러나 선진규는 멈추지 않았다. 웅변 연습을 하고 또 했다. 그 결과, 32번 대회에 나가서 17번을 등수에 들었다.
“내가 좀 끈질긴게 있거든.”
이 끈질김이 선진규를 동국대 불교학과로 진학시

켰다. 그리고 그를 법사로 만들었다. 청소년수련원을 세워 전제산을 탕진했지만 그는 언젠가는 수련원 일대가 불교인재를 양성할 묘를 푼다고 해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고교 졸업 후 선진규는 스님이 되고 싶었다. 부산 공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출가를 위해 무자정 상경해 조계사를 찾았을 때, 권사로 스님(동국대 초대총장)을 만났다.
권사로 스님에게서 “출가를 하려거든 우선 학문을 마치라”는 조언을 들었다.
스님의 조언에 따라 1955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다.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가 불교대학 동기다.
“고등학교때 선생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동국대에 입학했어요. 동국대 불교학과 가는 것이 내게는 출가와도 같았어요. 입학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눈물을 쏟으며 들어간 불교학과였는데, 교내 위상은 바닥이었다. ‘목탁과’라 놀림 당하고 있었던 것. 불교학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그는 전국유년대회에 출전했다. 그리고 특등을 했다. 학생들은 모두

불교, 세상 위해 무엇해야 하나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고민 끝에 관음보살에 호미 들러
심신·사회·경제·사상 개발 주창

놀랐다. 전국유년대회 수상 이후 달라진 것은 불교대학의 위상만이 아니었다. 선진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경전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학생 선진규는 해인사를 찾았다. 2학년과 마치고 3학년을 올라갈 무렵이었다. 행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난리가 났다. 총학생회장 선출을 두고 4학년 학생들끼리 크게 다투자 당시 백성욱 총장은 3학년 학생을 총학생회장으로 하라는 명을 내렸다. 학생들은 대의위원회를 거쳐 학생 선진규를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선진규는 학교에 없었다.

그때 학생 선진규는 행자가 되어 해인사에서 <원각경> 수업을 듣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해인사로 선진규를 찾아왔고, 그를 학교로 데려갔다. 머물렀던 곳은 채 그대로.

백성욱 총장을 만나서도 선진규는 경전공부를 해야겠다고 고집했다. 그런 그에게 백 총장이 말했다.
“이 녀석야 머리가 복잡하다고 해인사를 찾았어? 너는 머지않아 해인사의 물·바람 소리가 시끄럽다며 가야산 꼭대기를 찾은 것이고, 그 꼭대기서는 스스로 귀가 시끄럽다면 다시 내려올 것이야. 공부해 내가 시켜줄테니 그냥 나와 함께 있어.”

총학생회장 선진규는 그 날부터 6개월간 매일 2시간씩 백성욱 총장에게 <금강경> 과외를 받았다. 경

전공부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며 선진규는 평생의 배움을 만났다.
대학총학생회장 모임에서 당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던 부인 故 김기업 여사를 만났다. 김 여사는 평생 선진규 법사 곁에서 내조했다.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장, 서울시 부녀야동과장 등 요직에서 목동 청소년수련관 등 불교계 시설위탁에 큰 몫을 한 여성불자이기도 하다.
선진규가 총학생회장을 하던 당시는 학생운동도 활발했지만,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로 삶이 궁핍한 때였다. 졸업을 코앞에 두고 선진규는 고민했다.
“우리 불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청년 선진규의 고민에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이 마음을 보냈다. 1959년 호미든 관음상이 봉안됐다. 심신·사회·경제·사상개발의 4대 개발도 함께 부르자였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불러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합니다. 하물며 중생구제의 원을 세운 부처님이 호미를 들고 민중선 정사에서 개발을 위해 서 계신다면 그 원이 이룩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도원 관음상은 호미를 들고 있습니다.”

민중선이던 봉화산 꼭대기에 호미든 관음상이 봉안됐을 때, 당시 중이었던 노 前 대통령도 식목행사에 참여해 관음상 주위에 나무를 심었다.
선진규 법사는 “노 前 대통령이 ‘일부러 부처님 근처에만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정도원에만 오면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말했다.

봉화산의 유래에 대해 선진규 법사가 말했다. “옛날 가락 때(가야국) 왕족의 번영을 위해 지은 암자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해 무축산 모은암(母恩庵)과 양산 인근 부은암(父恩庵)이 왕비와 왕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태자암(太子庵)이 있던 곳이 봉화산이었어요.”

선진규 법사는 예전엔 봉화산이라고 안 부르고 태자암이 있다고 해서 자암산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봉오산이라 부르는 것을 1962년 전국적으로 축장조사를 할 때 선 법사가 건의해 봉화산이라고 이름하게 했다. 뒤편에 불승대가 있기도 했지만 호미든 관음상을 통해 주창했던 4대개발의 햇살을 높이 들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선진규 법사는 “종교는 국경이 없더라도 종교인은 국경이 있어야 합니다. 종생의 부름에 답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호미든 관음상이 봉안되자 불교계서 말이 많았다. 비구·대처 싸움 속에 서로 이를 두고 또 다름이 벌여졌다. 청년 선진규는 불교계에 “천수천안 관음보살이라는 데 그 손에 호미만 들었겠느냐”라고 설렘했다.

호미든 관음상을 봉안하고 이듬해 4·19혁명이 일어났다. 10년 후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
“새마을운동을 지휘한 김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았으며 봉화산에 왔어요. 그 분은 비서들 다 보내고 이곳에서 1주일 동안 정신적 충진을 하겠다고 했지요. 이곳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선착순) ◆원서접수: 2012년 2월중
◆개강일시: 2012년 2월 개강. 매주(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향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대법사과정,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불교석학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교육원,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2012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지동 110-39번지(한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02)737-5305
☎ 02)733-1959 720-1836



법복을 입은 선진규 법사. '앉지 않고 서서 선 법사'라는 그의 말처럼 부지런하게 평생을 포교에 매진해 왔다.

서 개발의 기운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선진규 법사는 노무현 대통령도 호미든 관음상의 위신력으로 당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규 법사는 "부처님 가르침은 영원해야 한다. 정치돼 있으면 죽은 것이다"라며 "호미든 관음상은 중생의 탐진치 삼독심을 빼고 보리심을 심고 불과(佛果)를 깨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봉화산 정도원은 1920년대 자암사라 불리던 작은 암자였다. 선진규 법사가 할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찾던 절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자암사는 화일사로 이름을 바꿨다.

청년 선진규는 졸업 후 백성옥 총장의 도움을 받아 봉화산 화일사를 봉화사(現 정도원)로 바꾸고 농촌계몽운동을 시작했다.

"불교에서 마음과 육체가 깨끗하고 주위 환경이 깨끗하며 생사가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을 정도라고 합니다. 불교의 최고 이상세계를 극락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도원이라 이름했습니다."

청년 선진규는 불교의 이상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고 싶었다. 원(苑)이라고 한 이유는 부처님 당시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설법을 많이 했는데 불법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이를 인용했다. 또 어감상 좋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 선진규 법사의 설명이다.

토지 11만5703㎡(35000평), 35만원을 지원받아 창건된 봉화사는 본격적인 농촌운동의 산실이었다. 봉화사에서 선 법사는 1967년 사명대사와 만해스님상(像)을 세웠고 1972년 조계종 중앙 상임포교사로 발탁됐다.

"12명이 신청해 4명이 초대 포교사가 됐는데, 첫 월급이 쌀 한가마니 값도 안되는 거예요. 함께 포교사하던 무진장 스님 등은 스님이니 그렇고...나는 처자식이 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래도 버텨요."

포교사 선진규를 버티게 한 것은 '끈질기'였다. 배고파서 그만 뛴다는 소리라도 들으면 다행일텐데, 재가자를 포교사로 뽑아놓으면 (근기가 약해) 금방 나간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였다.

선진규는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23년간 열심히 포교활동을 펼쳤다. 당시 무진장 스님이 332회 법문을 했고, 선진규가 그 뒤를 이어 280회를 했다. 포교사 선진규가 주로 다닌 곳은 교도소·청년회 등이었다.

조계종 상임포교사 1호로 활동

50년간 교도소·청소년 포교

봉화 정도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

"학교 폭력 해결 불교계 나서야"

선진규는 16개 지회였던 청년회를 결집해 240개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청년대회를 시작했다. 당시 만해탄신 100주년, 3·1운동 60주년에 맞춰 만해백일장도 만들었다. 첫 찬불가 LP판도 제작해 포교에 활용했다. 10·27법안을 세상에 알리는데 적극 나섰고 한일불교청년회 교류협정 체결 등 한국불교 국제화에도 뒤지지 않았다.

"개신교의 YMCA에 버금가는 시·군·구 단위가 지 불교청년회 지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지요. 안타깝습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한 그의 열정은 1990년 봉화산 임야를 담보로 청소년수련원을 짓기에 이른다. 원력만으로 거침이 없었던 그는 한달 5부 이자를 물며 사재를 끌어다 썼다.

"말할 수 밖에 없었어요. 사채 이자를 어떻게 다내겠어요?"

선진규 법사는 "내가 아니더라도 불교계가 경매로 날린 24만평을 되찾아 청소년 도량으로 일궈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4만평을 날렸지만 선진규는 좌절하지 않았다.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얻어 전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를 구성했다. 만학으로 창원대 환경공학과에 진학해 '청소년 환경 윤리관 확립의 연구'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청소년 문제를 남들보다 진단체 온 전문가이기도 하다.

2000년 한국청소년수련협회장을 역임하면서는 "전국 공·사설 수련시설이 청소년의 심신 건강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예절서당 프로그램을 창안해 전국 순회 예절 교육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88올림픽 때에는 기획홍보실장을 맡아 불교 문화 콘텐츠인 유등을 이용해 10만 유등 문화행사를 열기도 했다.



봉화 정도원 호미 든 관음상

열기도 했다.

선진규 법사는 얼마 전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다. 그 이전부터는 노무현 대통령을 인연으로 민주당 노인위원을 8년째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불교 이야기만 나오면 나를 쳐다 본다. 나같은 사람이 여·아를 막론하고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선 법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49재를 정도원에서 봉행한 것도 국민들로부터 불교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규 법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내가 불자이고 포교사인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진규 법사는 "한국불교에서 절 짓는 불사는 그 만하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인재 키우는 데 매진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정도원에서 소인보고 봉사하는 출·재가자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선 법사는 "앞으로 엄청난 숫자의 청소년이 봉화산 정도원 수련원을 찾아 불교를 전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 이슈화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선진규 법사가 말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불교적 소양을 가진 교육이 됐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남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불교계가 청소년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찰마다 한명씩이라도 청소년을 키워야 합니다."

선 법사는 청소년 문제 해결방법으로 템플스테이를 제안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반관 말고 속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규 법사는 대중의 부름이 있다면 4년 정도 대사회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부름이 없다면 바로 보림에 들어가 바깥으로 향했던 자신을 수련하며 회향할 생각이 다.

"정적인 수행은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적인 수행이 맞으니 지금까지 평생 포교를 해왔겠지요? 제가 누구니까? (앞은 법사가 아닌) 선 법사입니다. 앞으로도 포교사로서 끈질기게 살아갈 겁니다."

글=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피안의 향기

어느 경우 사람이 어리석다. 그 어리석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타인을 따르고 모방하고 맹종하는 것이 아닐까.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지식을 맹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을 되풀이 하는 앵무새가 되고 녹음기가 된다. 녹음기는 아주 능숙하게 되풀이 하지만 다음 책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어쩔할 바를 모른다. 배운 사람에게는 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지성이란 순간순간 변하는 삶에 반응을 보이는 능력이자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선종사를 일별하다 보면 영우 선사(靈友)가 제자 함업과의 대화에서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어느 날 영우 선사는 경전만 읽고 있던 함업이 걱정되어 조용해 제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릴적에 글을 읽고 있던 함업은 경전의 내용이라면 뭘 모르는데 있을까 자신만만해 스승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스승은 "함업아, 부모님으로부터 함업이라는 이름을 받기 이전의 네 모습은 무엇이냐(父母未生前 本來面目)"라는 질문을 던졌다. 스승의 질문에 앞뒤가 막 막한 제자는 마침내 평소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 '이 생애 불교를 공부해 깨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후원에서 대충 시봉이나 하며 지내야겠다'고 다짐하고 스승 곁을 떠났다. 물론 그는 후일 돌맹이가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가 기원이 되어 크게 깨칠 수 있었다.

이번에 정년을 맞아 (최현각 선학전집) 10권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그 전집 11권에는 연보가 들어있다. 그 속에 정각원 소임을 볼 때 존음을 아끼며 그리 그림으로 '소묘 1'이란 작품이 있다. 작품 속에는 안개꽃과 잠미 한 송이가 꽃혀 있다.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라 눈길이 오래 머무르기도 했지만 다른 연유가 있다. 우리는 잠미꽃을 볼 때도 잠미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념이 스쳐갔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읽는 잠미, 시인들이 노래한 잠미, 화가가 그린 잠미 등을 본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기억이 눈을 가리고 말았다. 단순한 잠미꽃조차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기억과 정보의 홍수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머릿속에 기억된 말을 되풀이 한다.

"잠미꽃은 아름답다." 이 말은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주위들은 말을 녹음기처럼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겠다는 것은 겸손하겠다는 뜻이다. 그 행위에는 향기가 있다. 예사로운 향기가 아니라 피안의 향기다. 배움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고를 내려놓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창공을 나는 새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지만 인간은 노래를 잊어 버렸다.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고 공작이 춤을 추지만 인간은 춤을 알지 못한다.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인간은 생각할 뿐, 나무의 성능을 높이고 대량생산하는 불구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피안의 향기에 취할 수 있는 묘약이 있다. '금으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로를 통과할 수 없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을 통과할 수 없으며, 흙으로 빛은 부처님은 물을 건너지 못하지만, 참 부처(眞佛)는 속이 깨끗하다'고 <전등록> 제28권에 조주 선사는 밝히고 있다. 이어서 '보리·열반·진여·불성은 모두가 몸이 걸친 의복이며 번뇌라고도 하니 남에게 묻지 않으면 번뇌가 없다. 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어 없으니 그대는 오직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 앉아 보아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식·정보·기억에 눈가려져 실체 못보고 남의 말 되풀이만 가장 가까운 눈썹 못 보듯 진불·피안의 향기 느끼지 못해

어느 경우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의 눈은 사물을 보는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속눈썹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가까운 것은 쉽게 잊기도 하고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눈에 보이는 금불(金佛)·목불(木佛)·니불(泥佛)은 잘 보인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진불은 보기가 어려워 망각하고 살기 마련이다.

이따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하지만 신통한 답을 얻지 못하고 이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화장품의 향기는 유한하기에 일정한 시간 동안만 그 기능을 한다. 아무리 좋은 세계적인 향수라 해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가지에 으뜸고 있는 새색을 보는 것도 피안의 향기다. 동토를 밀어내고 대지에 푸르름을 안겨 주는 것도 피안의 향기다.

그 고매한 향기를 대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진불의 향기가 넘치고 있음을 오롯이 알아야 한다.

바로 그 그러한 피안의 향기가 가장 가까이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쭈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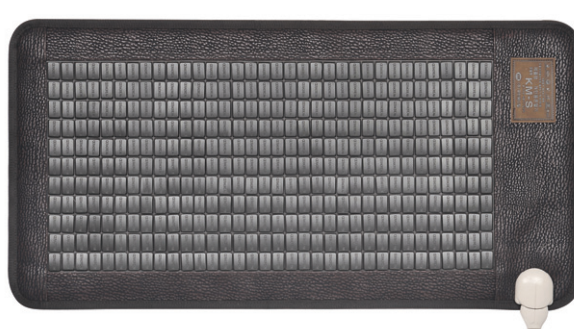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귀사문석(貴蛇炆石)이란???

귀사문석은 흑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이 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몸을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열이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역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균력이 약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 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역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이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균력이 약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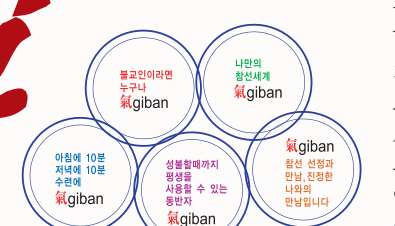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 방출되는 방안의 숨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라. * 두한족열(頭寒足熱):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배게 받으면 따뜻하게(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켜주세요!

- 제조원: (주)국민메디칼 / 경기 양주시 울정동 115번지
- 판매원: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농협 355-0014-5055-43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